奉祝隨想

비움의 삶이란

하림 스님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그림 · 최주현

은사 스님 모시며 다시 찾은 여유로움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는 것이 나타나
혼란의 시기, 이제 우리도 내려놓을 때
반짝이는 아침 이슬 감사하며 살아가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 자주 나누는 인사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 변화하고 혼돈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기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줄 글을 부탁받아 시작하고는 있지만 위로와 희망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려 한다.

요즘 내 주변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다. 먼저, 연로하신 은사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다. 스님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일이다. 매일 아침 7시 50분이면 스님이 계신 2층에 가서 공양하시도록 모시고 내려온다. 때론 일어나 계실 때도 있고 다시 주무시고 계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다린다. 한 시간이 넘게 더 주무실 때도 있다. 옆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겹거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간간이 고는 콧소리는 오히려 듣기 좋은 음악처럼 들린다. 공양이 식어가지만 스님의 시간은 온전히 스님에게 맞춰진다.

시간을 맞춰서 움직이게 조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스님이 드시고 싶어 할 때가 공양 시간이고 주무시고 싶어 할 때가 잠자는 시간이다. 그래도 평소에는 8시 30분에 공양을 하셨는데 언젠가 부터는 더 늦어진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 시간에 절에서 도량을 둘러보고 절 앞에 준비한 명상센터에서 문을 열고 차를 한 잔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한 달이 넘게 스님과 함께 아침 공양을 하느라 당연했던 일상을 놓치고 있다. 그런데도 왠지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다. 또,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시간에 쫓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다.

한 번은 은사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스님 계셔서 좋아요. 스님 모신다는 이유로 제가 일을 안 하고 쉬게 됩니다. 덕분에 몸도 마음도 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요즘은 우리 종무원 식구들에게 이런 불평이 조금씩 들린다. "요즘, 스님하고 의논할 시간이 잘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짓는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던 과거와 온전히 은사 스님의 건강 챙기는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찰 운영이 더 잘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한 풀 죽어 오히려 편안해 보이듯이 내 삶이 한 숨 쉬고 있는 배추가 된 것 같이 오히려 편안하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니 나는 어릴 적부터 늘 '남을 위해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쁜 것이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어릴 적 절집 생활을 시작했고, 늘 신도들의 도움으로 살게 되니 그 신세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이런 생각에 더 열심히 살고, 힘들어도 '이것이 잘 가고 있는거야'라고 믿었다. 늘 신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고 편안하게 하고 신행생활을 편히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했다.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그 길을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삶이야! 신세를 갚아야 해'라는 것이 나의 목표이자 올가미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그것은 분명 바른 것이지만, 지나치게 매달림으로서 정작 나는 힘들고 지치고 불편했던 것이다.

이제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균형을 잡을 때인 것 같다. 만약, 은사 스님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잠시 내려놓고 멈추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고 스스로도 살아가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요즘 우리 국민의 사정도 비슷하다. 한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다. 먹고 사는 것 해결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 없이 앞으로, 앞으로만 급하게 빠르게 채찍질 하면서 달려왔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제는 지구상 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라고 인정하는 수준이 됐다.

이제는 그 목표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좀 쉬면서 일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피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옮겨가야 할 때다. 나도 어릴 적부터 가졌던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려고 한다. 나 혼자 붙들고 살았으니 혼자 내려놓으려 한다. 할 수 있었던 시기에 해야 할 만큼은 충분히 한 것 같다. 산꼭대기에 도달하면 오른 만큼 내려와야 하듯이 이제는 내려가는 시간을 즐기려고 한다.

성장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비우는 것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 조금 쉬어가더라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온 길은 좋은 추억들을 가슴에 남기고 다가올 미래는 희망을 담아도 될 만큼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을 스스로를 비우는 시간으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 바쁘게 뛰어온 만큼 잠시나마 가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다. 밤이 오면 쉬어가듯이 우리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써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선정됐다고 한다. 봄의 한가운데서 불을 밝힌 연등을 보며 스스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침이면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을 보며 기뻐하며 살아가자.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이기려고 살지 말고 여행 온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한 번 사는 세상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천천히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모든 것에 고맙고, 또 고맙다.

社說

국민과 함께 한 온라인 연등회

올해 연등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두 개나 추가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처음 열렸고, 역대 처음으로 온라인 연등회로 진행됐다. 각각의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유네스코 등재 이후 첫 연등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 불교계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지점임을 짚을 필요가 있다. 올해 연등회는 부처님오심을 축하하고 경탄하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는, 화룡점정의 순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를 포기하고 연등회 본연의 의미를 살려 비대면 개최를 택했다.

그렇기에 올해 연등회의 의미 역시 찬찬히 되새겨 볼 만하다. 불교계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연등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키로 결단한 것은 대자비심의 발로다. 역사적인 순간, 불교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보다는 전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등회를 통해 유네스코 지정을 축하하고 규모를 키우기보다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기리는 행위, 즉 중생의 고통을 보듬는 가르침에 무게중심을 뒀다.

불교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위해 산문폐쇄 등을 강행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연기하고 연등회까지도 취소한 전력이 있다.

불자들은 아쉬운 만큼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할 터다. 10만 연등의 물결은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는 가운데 모두의 마음 속에 연등이 장엄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마음 속 연등은 각기 서로가 자리한 곳에서 유의미하게 이어져, 결국엔 부처님 오신 진정한 의미를 더 넓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성전' 법공양, 십시일반 동참을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종단본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5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단체 대표, 불교계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해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 선포식을 열었다.

〈화엄경〉에서는 "공양 중 으뜸은 법공양으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열심히 수행하여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보리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다양한 법공양이 있겠지만 팔만대장경 속 부처님 말씀 중 현대인에게 전할 가르침을 추린 조계종 최초 성전인 〈불교성전〉을 널리 알리는 것 만큼 수승한 법공양이 있을까.

참된 불공이란 개인의 수행 정진과 함께 중행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한 보살행을 의미한다. 타인의 수행을 독려하는 일 또한 보살행의 일종이다. 끊임없는 전법행이 바로 수행의 일환이다.

그동안 한국불교계는 〈불교성전〉이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지 못했다. 성전을 수지독송하는 문화형성과 이에 기반한 신행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공양 불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조계종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불교성전〉은 불자를 불자답게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소중한 인연들에게 〈불교성전〉 법공양을 올려 단단한 인연을 맺자. 〈불교성전〉을 이웃에게 권하여 수지 독송하게 하는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에 불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TEL 1670-2010